박원자의 母情佛心 ❻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 협회장 어머니



▶ 한줄 요약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운영하는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에게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이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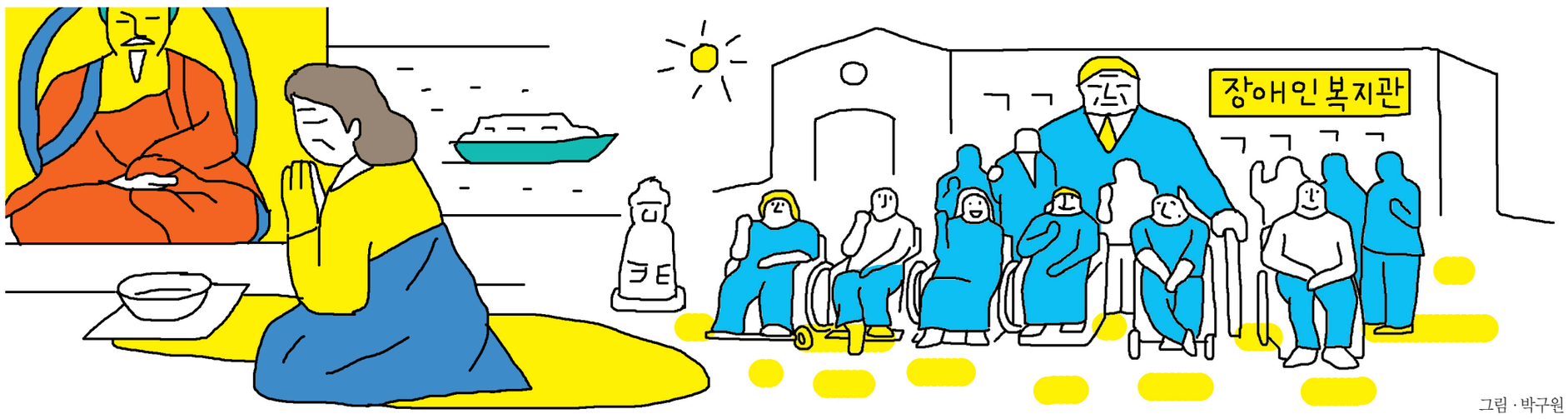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아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쓰였지만
홀로 서는 법을 먼저 가르 쳤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가르침
장애인 사회복지 사업으로 승화

말쑥한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이동한 회장을 전라도의 어느 사찰에서 처음 보았다. 얼굴은 바람 한 점 없는 들판처럼 평화롭고, 눈빛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깊어보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 등 명함에 박혀있는 직함들이 온통 남을 돕는 일이었다. 그 후로 인연이 이어져 간혹 그를 만나게 되었다. 볼 때마다 언행이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리에 찬 보조기를 푸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얼핏 보았지만 어린 아이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잊을 수 없다. 그의 다리 사용량이 건강한 사람의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가는 다리를 딛고 사업에 성공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그의 지팡이가 어느 고승의 주장자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해보였다.

20여 년 넘게 보아오는 동안 그에게서 한 번도 성치 않은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보통 사람보다 열 배는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관세음보살' 이지 않았나 싶다. 그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터는 그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아, 어머니, 어머니' 로 들렸는데, 이는 아마 그에게 관세음보살은 곧 어머니를 의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흔이 넘은 그는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을 붉힌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43세에 지아비를 잃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막내아들이 3살 때였다. 갑자기 가장이 된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배로 16시간이 걸리는 부산을 오가며 포목점을 경영해 6명의 자식을 키웠다. 부지런하고 강인했던 어머니였으나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막내아들이 늘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아들을 등에 업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리고 부산의 가장 큰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아들의 소아마비를 치료했다. 그 후로도 제주도에 명의가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달려갔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기어 다니던 아들은 양쪽에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발을 떼기 시작했다.

7살 때, 처음으로 대문까지 힘겹게 20m를 걸어서 집 앞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던 어린 아들의 뒷모습을 어머니는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좀 더 잘 걷게 하리라,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 남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것만이 어머니가 부처님께 드리는 서원이며 기도였다. 아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고, 머지않아 어머니의 서원을 현실로 이뤄냈다.

어머니는 오로지 '관세음보살' 을 불렀다. 아들이 한글을 떼자마자 머리맡에 〈천수경〉을 두고 읽고 외우게 했다. 어머니에게 부처님은 집안을 돌봐 주는 막강한 수호신이자 의지처였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손질한 흰 한복으로 갈아입고 장독에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떠오르는 해(일광보살)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비가 오는 날엔 대청마루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저녁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부엌에 모신 조왕대신에게, 밤이 되면 치성광여래에게, 보름날엔 밤하늘로 환히 떠오르는 달(월광보살)을 향해 '그저 자손들이 총명하고 다재다능해서 부처님 성현들을 공경하고, 조상님께 효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고 기도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몸에 밴 분이었다.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밥 한 끼라도 먹여 보냈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불러 재워 보냈다. 쌀을 들여오면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부터 담아놓고 다음으로는 제사 명절 때 조상님을 위한 것으로, 나머지는 걸인, 식구들이 먹을 쌀로 나누어 보관했다. 아픈 다리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아들은 늘 어머니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말씀, 일거수일투족이 다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그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똑같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웃을 섬겼던 자비 보살행을 장애인을 돕는 사업으로 이어갔다.

어머니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걷게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 쏟았다. 아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걷기 연습을 시키던 어느 날 라디오 뉴스에서, 미국에서 소아마비 수술을 전수받은 한국 교수들이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 길로 아들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다. 2년 6개월에 걸쳐 16번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대장정 끝에 아들은 한 쪽은 보조기 착용으로, 나머지 한 쪽은 목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 앞에 아들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철없는 친구들이 '절뚝발이' 라고 놀려대고, 운동회 때마다 서럽고 아프게 밀려왔던 소외감으로 몸을 떨었을 때도 가슴 아파할 어머니를 생각해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 줄 수는 없을 테니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배워야 일을 하고 너 혼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회장에게는 평생의 화두였다.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모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고민이자 숙제라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 아들은 장애인들의 대부가 되어 그들이 그 숙제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 회장은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 이라고 조언한다. 자신을 믿어주고 헌신했으며 지혜롭게 이끌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남보다 두세 배 부지런히 노력해야 내가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다며, 어머니는 일요일에도 도시락 두 개를 싸놓고 새벽부터 아들을 깨웠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은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는 물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도전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살겠다는 꿈을 갖게 했다.

어머니는 항상 진실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마음이 진실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근면하면 땅이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길이었다. 삶 자체가 진실되고 한평생 부지런했으며, 남을 돕는 데 앞장선 분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성치 않은 다리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술을 익혔다. 어머니의 수도 대행 사업을 자주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도공사와 관련된 일이 눈에 들어왔고 20살에 계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제주도 최초 계량사가 되었다. 장애인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머리를 쓰는 일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최연소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딴 것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였던 어머니의 덕분이었다.

아들은 상수도 사업과 택시미터기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것이 재정적 토대가 되어 23살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25살에는 제주공항 조경 사업을 맡아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성치 않은 자식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 물러섰더라면, 제주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교육사회, 의료, 직업재활을 갖춘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인 춘강' 은 없었을 것이다.

"철심을 박은 다리에 지팡이를 짚고 일하며 번 돈인데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으면 복지 일을 시작 못했겠죠. 어머니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한히 신뢰하고 후원해주셨어요. 내가 죽고 없어도 잘 돌봐달라며 어머니 주변 분들에 인사시키며 부탁하셨죠.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신용을 쌓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원동력은 아무래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었겠죠?"

"신심이 대단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절을 찾아다니며 도우셨어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곳이 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화주를 도맡아 하셨죠. 살기 힘든 시절에도 권선을 하며 어려운 분들이 복을 짓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절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어려웠던 절들이 금세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다시 어려운 절로 발길을 돌렸는데, 돌아가실 즈음에도 저에게 당신 대신 어느 절을 도와주라고 부탁할 만큼 신심이 깊으셨어요."

어머니는 83세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 회장은 7일장을 치르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편히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3명의 스님을 모셔서 하루 네 번 정근하며 여법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렸다고 하니,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심으로 살면 불심이 드러나게 되어있다고 말하는 그에게 물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뒤 꼭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부모가 거울입니다. 내 뒷머리에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거울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부모님을 닮게 되고 그들이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도 자연히 밝아지죠."

이동한 회장의 어머니 오태인 여사야말로 세상의 큰 거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이 비록 큰 장애를 가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키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큰 인물로 만들어낸 어머니였으니,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오래도록 큰 귀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던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아니었을까 싶다.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